

“전복산업 살리자” 전남도, 5대 맞춤형 시책 본격화

산지가격 하락·소비 둔화 등 겹쳐 위기
금융 지원·유통구조 개선·브랜드화 주력
금지사 “현장 체감토록 속도감있게 추진”

전남도가 가격 하락과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전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5대 맞춤형 지원 시책 추진에 나섰다.

전남도는 27일 “전복 산지가격 하락과 어가 부채 누적,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어의 경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량, 금융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전복 생산량은 종자 생산과 양식 기술 발달, 가두리 시설량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2014년 8천87t에서 2024년 2만3천35t으로 10년 동안 163% 증가했다.

반면, 전복 산지 가격은 과잉 생산과 소비 둔화로 같은 기간 절반 수준까지 하락해 어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지가격(1kg/10미)은 2014년 4만6천304원에서 2024년 2만3천222원, 올해 9월 현재 2만3천원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여기에 주요 전복 생산지역 양식어의 평균 대출 규모는 1억2천만원으로 전국 어가 평균 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금융 지원, 유통 혁신 등 전복 산업 위기 극복 5대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채(7천83만원)의 1.6배 수준에 달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복 가두리 시설 감축 지원 ▲소규모·영세 어가 금융안전망 구축 ▲대출구조 개선 ▲전복 제품 국산화·브랜드화 지원 ▲원스톱 통합거점센터 조성 등 5대 맞춤형 지

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전복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산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320억원을 들여 전복 가두리 시설 10만칸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지방비 15억원을

들여 감축 희망 어가에 시설 해체·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을 지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감축 규모를 확대한다.

전복 양식어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안전망도 구축한다. 연매출 5억원 미만, 300칸 이

하 영세·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150억원으로 확대해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복 양식어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수산정책 사업의 상환 기간을 7년에서 20년으로 일괄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복 소비 촉진과 수요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 식품 대기업과 MOU를 추진한다. 수입산 전복으로 생산되던 기존 제품을 대신해 국내산 전복으로 만든 프리미엄 즉(가정·OK·남도 전복죽) 10만여개를 내던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전복 위판부터 가공, 선별, 저장, 물류 기능을 갖춘 원스톱 통합거점센터를 구축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대량 판매를 지원한다. 2026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해상수산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복 산업이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5대 맞춤형 지원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전남 상생형 AI 벨트 구축해야”

진보당 광주시당 “지역균형 발전 삼길”
“유치 과정, 시·도 협력 중요성 보여줘”

진보당 광주시당이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전남이 결정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광주의 전략·역량 부족에 아쉬움을 표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 전남 결정을 호남권 경제 부흥,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AI 산업은 국가적 미래 전략산업인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국가AI컴퓨팅센터를 발판으로 광주에서 전남까지 AI 국가전략사업의 영토를 확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호남권 경제 부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광주와 전남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상생형 AI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광주는 ‘AI 연구개발 및 산업 두뇌’ 역할을, 전남은 ‘AI 동력원 및 지역 특화 산업 융합’을 맡아 세계적인 AI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광주시당은 “광주는 국가AI데이터센터, AI반도체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이용해 AI 기술 개발, 연구, 창업, 실증을 주도하고 고급 AI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전남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AI컴퓨팅센터와 에너지분산형 대규모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광주의 AI 역량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당은 또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과정은 양 시·도의 협력이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27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선포한 데 머무르지 말고 신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합동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며 “광주·나주·광주·화순 광역철도, 군공항 문제 등 광역 현안들을 합의하고 해결하면서 신뢰를 쌓고 최종적으로는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은진 기자

조계원, 민주 전남도당 위원장 불출마 선언

“地選 승리 밀알”...김원이 추대 전망
金 “상반기 잔여 임기 동안만 맡겠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 국회의원인 27일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후보 등록을 마친 김원이 국회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에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선거가 ‘축제의 한마당’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당원同志들의 충정 어린 우려를 받아들였다”며 “전남도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결단”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 김원이 의원이 밝힌 ‘상반기 잔여 임기 동안만 도당 위원장 역할을 맡겠다’는 결단을 진심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의 불출마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끄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김원이 의원 및 전남의 여러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와 도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반기 잔여 임기 동안만 도당 위원장 역할을 맡겠다”며 “민주당의 단합과 전남도당의 미래를 위한 총정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남은 임기 동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당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준비와 승리를 위한 당내 소통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전남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 워크숍서 건강권 보장 방안 모색

전남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 워크숍이 27일 여수 신라스테이호텔에서 전남도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주관으로 열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를 공유

했다. 워크숍에는 장애인 건강 지원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전남형 현장

중심 정책으로 보건복지부 우수 사례 공모전과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가 소개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김재정 기자

2025 장성군 방문의 해

장성군 Jangseong

천년고찰 백양사(쌍계루)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